

생명·고향·미래의 땅 금산

금산인삼 소식지

2022.04.30

ISSUE NO. 3



제40회
금산인삼축제를

錦山人蔘



금산이 Geumsan
 Ginseng

뿌리입니다

2022.9.30(금) - 10.10(월)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금산군



금산축제관광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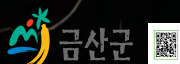


하늘선물 금산인삼

면역력에 답하다



금산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하늘선물 금산인삼!
금홍마크와 G-마크로 정품을 확인하세요



QR코드로 제품정보 및 정품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인삼약초산업진흥원, 기술이전 및 지원사업 설명회 성황

-지재권 조기사업화 위한 공동개발 협력 전략 등 공감대 형성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4월 14일, 지역식품 및 의약품제조업체 30여 기업과 함께 기관 보유기술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지재권 이전과 소재 및 제품화기술의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 공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설명회는 2022년 기술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4건의 지재권(등록특허)과 기관 보유 현장기술노하우 1건, 기업 공동협력프로그램 2건을 소개했다.

설명회에서 소개된 특허는 조성물제조기술 2건과 조성물 특허기술을 활용한 용도특허 2건으로 설명회 현장에서 기술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향후 기술이전 협약을 위한 공개 상담이 이루어졌다.

진흥원에서는 소개된 기술과 함께 지역식품 및 의약품 제조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사업화기술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현장애로해소를 위한 정보를 공유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관

이 보유한 과학기술노하우를 참여기업에게 공개하여 주목을 받았다. 공개된 기술노하우는 홍삼농축액을 원료로 다양한 제품에 적용가능한 소재화에 필요한 건조소성기술로, 관련 기업들의 향후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초정보 제공과 최적제형을 선택하는데 매우 유용한 산업정보이다.

진흥원에서는 금번 설명회에서 소개된 기술의 이전 및 전수 조건과 보유기술과의 적합성, 사업화여지 등을 고려한 관심기업과의 개별상담을 통해 기술이전 협약에 이르게 된다. 진흥원은 설립 이후 개발 특허 78건 중 보호기술을 제외한 41건(63%)을 21기업에 기술이전을 완료하여, 높은 기술사업화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설명회 후에 이루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영수 원장은 '기술개발의 목적은 필요한 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그간 확보한 연구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의 품질고급화 및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 공정개발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연구개발센터 유대석]

금산 삼계탕축제 7월 15일부터 사흘간.. 인삼축제는 9월 30일 ~10월10일



금산군은 지난 19일 금산축제공관재단 이사회를 통해 제2회 삼계탕 축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삼계탕축제는 오는 7월 15일부터 3일간 열리며 삼계탕 판매코너, 물놀이터, 약초 콘텐츠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삼계탕 판매코너는 10개 읍면이 참여해 각 고장별 특색 있는 삼계탕을 선보이며 삼계탕 단일매뉴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추가적으로 금산 삼계요리, 전국 삼계요리 경연대회 등을 신설했다.

또 여름 축제로서 무더위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가족 여름삼(蔘)캉스 물놀이터와 삼계탕 보양의 의미를 강조하는 약초 콘텐츠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참가하는 금산 열대야 음악회, 여름 쿨 음악회 등의 야간공연 등도 기획됐다.

제40회 금산인삼축제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최된다. 올해 금산인삼축제는 2년 만에 현장 개최 방식으로 열리며 6일간의 휴일을 포함해 11일간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인삼약초시장 차 없는 거리, 추억의 인삼축제, 길놀이 등을 구성해 축제 파급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차 없는 거리에서는 관광객 참여 이벤트인 거리의 라디

오 쇼를 비롯해 인삼저장거리, 인삼아트체험, 건강미용체험, 거리의 뮤지션 등 체험과 볼거리를 풍성하게 마련해 인삼약초거리에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40주년을 맞아 과거 인삼축제의 추억을 회상하는 응당하라 1981, 그때 그 물건 등 프로그램과 공군 특수비행단 40주년 축하비행 블랙 이글스 에어쇼, 야간특별공연 추억의 가요 톱 10 콘서트 등이 새롭게 선보인다.

10개 읍·면 길놀이도 대폭 개선했다. 길놀이 운영시간대를 오후로 변경하고 길놀이 시작도 행사장에서 출발해 관광객들이 10개 읍·면의 특색 있는 길놀이를 관람할 수 있도록 보강했다. 이외에도 행사장 곳곳에 야간 빛 조형물과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건물 벽면을 이용한 빛과 소리의 쇼도 계획해 야간 볼거리도 강화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제40회 금산인삼축제가 현장 개최돼 지난해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개선된 축제 계획을 수립했다"며 "축제를 통해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금산인삼축제는 지난 2019년 38회까지 현장에서 열렸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39회는 온라인 개최, 2021년 40회는 올해로 연기됐다. [금산축제공관재단]

금산여고 과학 탐구 동아리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견학 - 연구 개발 현장 체험 통한 지역특산물 인삼의 이해도 높여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원장 김영수)은 지난 4월 6일 금산여고 사이니어스 과학 탐구 동아리 13명이 “인삼의 생리활성 효과 확인 및 인삼에 대한 정보 습득”의 목적으로 진흥원을 견학하였다고 밝혔다.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김영수 원장은 금산여고 과학탐구 동아리의 진흥원 견학 방문을 환영하며 진흥원의 비전, 전략, 조직, 추진하는 업무 등을 소개하고 금산 지역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과 그 동안의 다양한 성과를 이야기 하였다.

진흥원은 금산여고 학생들에게 인삼의 추출 및 성분 분석을 통한 소재화 과정과 세포 및 동물실험을 통한 효능 평가 등의 다양한 연구 활동과 제품 개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체험하게 하고, 인삼의 약리성분 사포닌과 인삼의 효능 등에 대한 궁금증도 설명하였다.

또한, 이번 견학을 통하여 금산여고 과학 동아리 학생들이 지역특산물인 인삼에 대한 이해도와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였다.

[연구개발2팀 표미경]

“인삼, 코로나19 면역력 증진효과”관련내용 재외동포 언론에 보도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회원사 24개 매체 총 27건 기사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인삼의 면역력 입증)

보도자료 게재 보고서 (2022년 3월)
총 24개 매체 총 27건 게재
상세 내용

게재 내용	인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억제 효과 밝혀져 - 인삼약초산업진흥원·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인삼의 면역력 입증
게재 매체	쿠쿠뉴스(오스트리아), 미시간코리아위클리(미국), CN드림(미국), 캐나다한인방송(캐나다), 한불통신(프랑스), 홍콩주요저널(홍콩), 상해한인신문(중국), 알래스카앵커리지코리안뉴스(미국), 해랑강닷컴(중국), 한카타임즈(캐나다), 교포신문(독일), 하나로신문(브라질), 미주헤럴드(미국), 시카고교차로(미국), 주간여성자신, 시카고라디오(미국), 한인포스트(인도네시아), 뉴스브리핑(캄보디아), 코리아워를러로리다(미국), 밴쿠버중앙일보(캐나다), 라이프플라자(베트남), 교민잡지(태국), 키르기즈한인일보(키르기즈스탄) * LA우리방송(미국) 방송 송원 파일 별도 첨부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원장 김영수)이 지난 3월 23일 고려인삼이 코로나19 사망률을 낮추고 회복에 도움

을 준다는 연구 결과에 대한 기사가 세계한인언론인협회의 도움으로 재외동포언론 24개매체에 27건이 보도됐다고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여익환 사무총장이 밝혔다.

진흥원 표미경 박사 연구팀은 충남대 수의과대학 서상의 교수 연구팀과 함께 생쥐에게 인삼추출물(몸무게 1kg 당 50ml)을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동안 각각 먹여 실험한 결과 인삼 추출물을 투여한 경우 그렇지 않는 쥐보다 사망률이 더 낮고, 체중 변화도 적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국내 각종 언론에 보도된바 있다.

이번에 보도된 국가는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중국,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금산인삼이 수출되는 국가로,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인삼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금산인삼의 효능 및 수출시장 다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진흥원 김영수 원장은 말했다.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여익환 사무총장은 한국의 대표 특산품이 금산인삼의 세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삼 효능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재외동포 언론매체에 홍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마케팅팀 최대영]

재고만 1.9조원 육박...

인삼종주국 '뿌리'가 흔들린다

주판로였던 면세점 매출 '제로' 소비부진 겹치며 가격 하락세
뛰는 인건비·자재값 감당못해 농협·농가 함께 돌파구 찾아야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매출 감소 직격탄을 맞은 인삼 업계가 계속되는 가격 하락과 늘어나는 경영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인삼농가들이 재배 의욕마저 잃는 등 인삼산업 전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소비 부진의 늪, 쌓여가는 재고=지속되는 소비 부진으로 인삼 재고가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가고 있다. 최근 찾은 경북 영주 풍기인삼농협 창고에는 인삼 재고가 가득했다. 풍기인삼농협은 임차료를 내고 외부 창고까지 빌려 넘쳐나는 인삼 재고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풍기인삼농협의 인삼류 재고는 350억원 규모로 적정 재고액(약 100억원)의 3배 이상이다. 인삼 재고가 넘쳐나는 문제는 비단 풍기인삼농협만의 일이 아니다. 고려인삼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인삼류 재고액은 KGC인삼공사가 1조1818억원, 11개 인삼농협과 농협홍삼이 2972억원, 일반 인삼 기업체와 농가가 4000억원 등 모두 합치면 1조9000억원에 육박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체 농산물 소비 부진을 불러왔지만 특히 면세점이 주요 판로였던 인삼은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다른 품목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다. 권헌준 풍기인삼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면세점에서 팔리는 인삼이 전체 판매량의 30% 수준이었다”며 “아직까지는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못하니 면세점 판매는 아예 사라진 격”이라고 아쉬워했다.

◆가격 끝없는 추락=소비 부진과 맞물려 인삼값 역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김진현 풍기인삼농협 전무는 “가공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파삼값은 20년 전에도 1채(750g)당 1만8000원이 나갔는데 지난해에는 8000~9000원으로 떨어지는 등 인삼값만 오히려 물가에 역행하고 있다”며 “산지에서는 파삼 1채당 1만5000원은 넘어야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는데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영주에서 인삼 재배를 하는 김창우씨(49)는 “5년근 기준



으로 1칸(약 3.3㎡)을 재배하려면 농사비가 최소 6만5000원 드는데 인삼값이 떨어져 지난해는 1칸 수확에 6만원 밖에 안 나왔다”며 “인삼값이 바닥으로 떨어져 이대로 가면 인삼농가는 다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인력 없고 경영비는 늘고=인삼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떨어지는 가운데 갈수록 높아지는 경영비는 인삼농가를 더욱 괴롭히고 있다. 전북 순창 인삼농가 윤금상씨(59)는 “10년 전만 해도 남자 인건비는 6만~7만원, 여자는 3만~4만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10만원을 더 보태줘도 일할 사람이 없다”며 “인건비가 말도 안되게 늘어난 데다 지주목이나 차광망 등 자재값도 2배 이상 뛰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엮친 데 덮친 격으로 이식삼 재배에 필요한 묘삼값도 지난해보다 2배가량 뛰었다. 고려인삼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고온 현상으로 묘삼이 햇볕에 많이 타서 묘삼값은 현재 평년 대비 2배 정도 올랐다”며 “750g에 5만~6만원 하던 것이 지금 10만~12만원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인성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전북인삼농협 조합장)은 “인건비는 하늘로 치솟고 생산 비용도 너무 많이 드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인삼종주국의 위상을 잃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과 농가 등이 모두 힘을 모아 돌파구를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집밥 지출늘리고 외식지출 줄였다

-신선 농산물 지출 11% 증가, 가공식품 지출 5% 증가-



< 코로나19 전후의 연간 농식품 구매변화(단위: 천원) >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외무 활동을 자제하고 가정 내 거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밥 지출은 7.8% 늘고, 외식 지출은 7.0% 줄었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식품 구매행동을 밝히기 위해 최근 3년간(2018~2020년) 매월 가계부를 작성한 소비자패널 1,134명의 농식품 구매정보를 분석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2019년과 발생 후인 2020년을 구분해 신선 농산물, 가공식품 구매액(지출)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신선 농산물 지출은 11.0% 늘고, 가공식품 지출은 5.0% 늘었다.

신선 농산물 중 축산물 지출이 20.4%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채소류와 수산물(13.0%), 식량작물(7.5%) 순으로 늘었다. 반면, 과일류(2.5%)와 특용작물(1.9%) 지출은 줄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40~50대 중장년층과 4인 이상 가구에서 신선 농산물 구매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30대 이하(6.2%)와 1인 가구(11.7%)에서도 신선 농산물 지출이 늘었다.

특히 집밥을 대표하는 주식과 반찬용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건강식과 편의식 관련 신선 농산물 지출도 늘었다.

집밥= 주식인 쌀(7.0%) 지출이 늘고, 당근(37.2%), 애호박(11.2%), 콩나물(8.8%) 같은 반찬 채소의 지출도 늘었다.

건강식= 팔(23.4%), 백태(14.3%), 혼합잡곡(10.9%) 같은 잡곡밥용 식량작물 지출이 늘고, 면역력 증진을 돕는 인삼(54.5%) 지출이 늘었다. 또 건강식을 위한 샐러드(70.7%)와 샐러드용 양상추(36.6%) 지출도 늘었다.

편의식= 딸기(5.2%), 블루베리(18.1%) 등 손질이 편하고 먹기 편한 과일 지출이 늘고, 단순 조리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

는 즉석밥(17.7%), 즉석식품(11.1%), 냉동식품(23.9%) 등 간편식 지출이 늘었다.

최근 다양한 부위의 축산물 지출이 늘고, 수입 축산물 지출도 늘었다.

다양성= 쇠고기(23.9%)와 돼지고기(22.8%) 지출이 늘었다. 쇠고기 등심(40.2%)이나 돼지고기 삼겹살(26.2%) 같은 선호 부위 지출도 늘었지만, 쇠고기 앞다리(부채살, 25.6%), 돼지고기 앞다리(22.0%) 같은 비선호 부위도 늘었다.

수입= 쇠고기 지출 가운데 수입 쇠고기 비중이 28.0%에서 30.0%로 2.0%p 늘었다. 반면, 돼지고기 지출 중 수입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이 4%대를 기록했다.

쌈채소= 가정 내 육류 소비가 늘면서 상추(17.5%), 깻잎(20.8%) 등 쌈채소 지출도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신선도를 중시한 거주지 인근의 슈퍼마켓 구매와 편의성을 중시한 비대면 온라인 구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색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슈퍼마켓에서 신선 농산물(1.2%p)과 가공식품(3.4%p)을 구매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에서 신선 농산물(0.9%p)과 가공식품(3.0%p)을 구매하는 비중도 늘었다. 온라인 신규 이용자*가 늘면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온라인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 2020년 온라인 이용 신선 농산물 신규 구매가구 비율은 16.6%, 가공식품은 18.9%

최근 30대 이하와 1인 가구 중심의 온라인 구매가 중장년층 다인 가구로 확산되고, 온·오프라인의 구매 품목이 서로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조성주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가



< 신선 농산물 지출 비중 변화(단위: %) >

공식뿐만 아니라 신선 농산물도 비대면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신선 농산물의 품질 정보를 디지

< 가공식품 지출 비중 변화(단위: %) >

털화하고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소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30대 이하의 건강식 관심 증가로 인삼과 버섯 지출 증가 건강 관심 증가로 면역력 향상을 위한 인삼 지출 증가

< 구매액 증가 Top 7 품목 : 특용작물, 쇠고기, 돼지고기 >

순위	특용작물				쇠고기				돼지고기			
	품목	'18~'19	'20	(%)	부위	'18~'19	'20	(%)	부위	'18~'19	'20	(%)
1	인삼	4,289	6,628	54.5%	등심	52,652	73,829	40.2%	특수부위	127	291	128.7%
2	양송이	1,921	2,407	25.3%	사태	11,328	15,019	32.6%	등심	8,148	10,339	26.9%
3	알로에	104	130	25.2%	갈비	51,424	67,711	31.7%	삼겹살	142,307	179,644	26.2%
4	팽이	3,404	4,191	23.1%	특수부위	2,199	2,864	30.3%	목살	43,050	53,838	25.1%
5	만가닥	456	515	13.0%	채끝	7,579	9,656	27.4%	전지	47,077	57,450	22.0%
6	새송이	7,080	7,492	5.8%	앞다리	21,966	27,598	25.6%	사태	4,007	4,817	20.2%
7	느타리	5,902	5,961	1.0%	양지	58,882	72,904	23.8%	기타	22,527	26,564	17.9%

* 30대 이하(▲45.4%), 200만원 미만(▲24.9%), 1인 가구(▲12.0%)의 지출 증가가 뚜렷, 특히 30대 이하(▲11.8%)와 200만원 미만(▲10.4%)은 홍삼제품 지출도 증가

- 집밥 증가로 반찬에 활용되는 양송이, 팽이, 느타리 등 버섯 지출 증가

*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만가닥각 ▲41.5%, ▲20.4%, 팽이(각 ▲37.5%, ▲13.5%) 지출 증가, 반면 40~50대는 양송이(▲42.7%), 팽이(▲27.6%), 새송이(▲8.7%) 지출 증가

유연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
금산인삼

힘을 얻는 건강 식품 인삼

면역력에 답하다

금산인삼

OR코드로 제품정보 및 정품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산인삼소비촉진을 위한 “2022년 인삼구매 상품권 지급” 1차 사업종료 전국에서 7,700여명 방문, 10억의 매출 달성

시 장 명	수령인수(명)	상품권 지급액(천원)	매출액(천원)	비고
금산수삼센터	4,293	48,835	550,513	
금산수삼시장	1,663	15,515	178,194	
농협수삼랜드	1,170	18,725	196,929	
인삼쇼핑센터	371	6,005	70,767	
인삼약초도매시장	211	2,985	40,909	
합 계	7,708	92,065	1,037,312	



4월2일부터 금산수삼센터, 수삼시장, 수삼랜드, 약령시장, 국제인삼시장, 인삼쇼핑센터, 금산약초도매시장 등 7 곳에서 진행된 금산인삼 소비촉진을 위한 “2022년 인삼구매 상품권 지급사업”이 지난 4월17일 종료됐다고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삼과 인삼제품(백삼·홍삼·태극삼·정과·절편)으로 구입 액수에 따라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5000원,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 1만 원, 20만 원 이

상 2만 원을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금산군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환급 수단을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정하고 부당참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참여 가능 횟수를 주 1회로 제한 했다.

4월 행사에는 전국에서 인삼을 구매하기 위해 7,700여 명이 방문했으며, 인삼시장 상인의 수삼 및 제조품 약 10억의 판매성적을 올렸다.

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기반으로 하반기 행사에는 전국 및 지역 방송사에 TV홍보를 비롯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매출을 극대화 할 전망이다.

금산군은 최근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인삼축제가 취소되었으나, 올해는 금산인삼축제 행사를 9월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최해 금산인삼에 대한 우수성 홍보뿐만 아니라 소비촉진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지원팀 김상섭]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캐나다 국제식품전 참여 '청정인삼' 한인매체 연계 홍보지원 한-카 타임즈, 청정인삼 홍보기사 및 월드옥타 차세대 연계 지원



[청정인삼 강동우 팀장(좌3) 김민식 대표(좌4)]

캐나다 몬트리올 Palais Des Congres에서 세계적인 식품 및 음료 박람회인 SIAL이 지난 4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다.

퀘벡, 온타리오 등의 캐나다를 대표하는 각 주는 물론이며, 미국, 벨기에, 멕시코 등 여러 나라의 식품업체들과 더불어 패키징 및 스타트업 기업까지 참가했다.

한국에서 참여한 기업으로는 고품질의 홍삼제품을 생산하는 금산의 청정인삼을 비롯해 버섯 및 과일류를 취급하는 굿모닝 코리아, 도라지 제품을 판매하는 서가 등 12개 업체가 참여했다.

한국관의 참가를 주관했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뉴욕지사의 한국관 안내는 현지 통역요원들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태극모양의 부채 등의 한국적인 기념품과 함께 박람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한국의 유제품 및 빙과류 전문 제조회사 '빙그레'는 한국관에 위치하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빙과류 제품인 '메로나'를 박람회 참가자들에게 시식을 권하고 홍보하여, 한 손에 메로나를 들고 박람회장을 누비는 사람들을 심심하지 않게 볼 수 있었다.

SIAL 식품 박람회에서는 포장, 유통, 무역, 코로나 바이러스 등 전체적인 식품사업을 관통하는 분야들에 대한 컨퍼런스도 개최되어, 현지 전문가들의 위기관리 방법 및

산업 트렌드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박람회장 가운데에는 국제 치즈 컴페티션, 최신 상업 주방용품 등을 소개하며 참가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여러 규제들 속에서 개최된 만큼 참가 업체 및 참가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으며, 한 쪽에 자리한 한국관의 여러 업체들의 자세한 제품소개는 한국식품이 점점 더 글로벌화 되어가는 것을 한번에 느낄 수 있었다.

한편,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원장 김영수)은 금산 청정인삼이 국제식품전에 참여하는 소식을 접한 뒤, 세계한인언론인협회(사무총장 여익환)의 협조를 얻어 캐나다 몬트리올 한인신문 한-카타임즈(대표 김민식)에 청정인삼의 홍보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월드옥타 몬트리올 지회와 함께 현지 바이어 발굴을 지원하기도 했다.

월드옥타 몬트리올 지회를 겸임하고 있는 김민식 대표는 한국의 대표적인 홍삼제품으로 전시회에 참여하는 '청정인삼'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게 되었다며, 앞으로 청정인삼의 제품이 캐나다 동부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홍보마케팅팀 최대영]

[충청도 핫플레이스]

충남 금산인삼시장, 일상회복으로 '시장 활기'

전국 인삼 70% 거래...50%까지 내려갔던 가격도 '회복'



인삼은 약 2000년 전부터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 '불로장생' 영약으로 만병통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삼은 '고려 인삼'으로, 다년생 약용 식물로서 극동지방(북위 30도~48도 지역)에서 재배되지만 자연환경에 매우 민감한 식물로 기후·토지 등의 적당하지 않은 곳에서는 인삼을 재배하기가 어렵다. 인삼은 한국이 인삼 생육의 최적지로 꼽힌다.

인삼은 대한민국만큼 독특한 성분과 많은 사포닌(saponin) 함량을 지닌 제품이 없어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재배되고 제품화된 인삼을 가장 선호한다.

과거 인삼은 정성을 다해 달여 먹었으나 요즘에는 먹기 좋게 다양하게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당나라에 선물로 인삼을 보냈다'는 기록이 성덕왕 편과 효소왕 편 등에 있고, 당나라 이순이

편술한 '해약본초'에는 '인삼은 신라국에서 산출하는데 왕에게 바친 것은 손과 다리 모양'이라고 산출지와 형태가 기록돼 있을 정도다. 이렇게 귀한 약재이다 보니 '경국대전', 속대전에는 '인삼을 갖춰간 자는 국경 상에서 목을 베어라'는 엄격한 법적 조치가 있었고, 일본과의 대마도 교역에서도 '밀매 시 적발되면 효수(梟首)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을 만큼 통제가 심했다.

충남 금산 하면 인삼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금산 약령시장은 3대 약초시장으로 그 토대는 인삼이었다. 금산에서 전국 인삼 70%가 거래된다.

금산에는 국제인삼시장과 금산인삼쇼핑센터, 금산인삼약령시장, 금산수삼센터, 금산인삼 전통시장에서 인삼을 판매하고 있다. 금산시장에서 연간 판매되는 인삼은 1만 1870t이며, 매출액은 2547억 원에 달한다. 역시 전국 최대 인삼시장이어서 그런지 그야말로 인삼 판매업체가 즐



비하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금산은 이 뿐만 아니라 금산은 약초 등의 최대 집산지이기도 하다.

2022년 4월 18일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2년 1개월 만에 일상회복이 이뤄지면서 고객이 없어 그동안 파리만 날리던 인삼시장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인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극심한 판매고를 겪었으나 인삼 성수기는 봄과 여름보다는 가을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실상 해제 순서, 즉 일상회복 단계라고 하지만 당분간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은 눈치다.

수삼가격은 다행히 지난해 4월 한 채(750g)에 3만2000원까지 떨어졌으나 2022년 4월 현재 4만 원까지 회복됐다. 상인들은 2019년보다 50%까지 급락했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금산 인삼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최근에는 건강보조식품이 발달하면서 인삼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인삼은 코로나19·독감 등 면역력 증강에 좋고 ‘천연 비아그라’라고 불리고 있다.

인삼은 약 60cm 내외의 다년생 초본이다. 보통 4~6년 후 가을에 수확한다. 인삼은 특유의 사포닌 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인삼을 가공한 홍삼에도 사포닌 성분이 그대로 포함되는데, 인삼은 사포닌 성분이 많을수록 우수한 제품이다.

인삼은 가공방법에 따라 수삼, 백삼, 태극삼, 홍삼 등으로 분류된다. 수삼은 경작지에서 수확한 가공하지 않은



삼을 말하며, 생삼(生蔘)이라고도 한다. 백삼은 수삼의 껍질을 벗긴 후 햇볕이나 열풍에 말려 수분함량을 14% 이하로 낮춘 것으로 말린 형태에 따라 직삼(直蔘), 반곡삼(半曲蔘), 곡삼(曲蔘)으로 나뉜다.

태극삼은 수삼을 끓는 물에 찌거나 데쳐서 말린 것이고, 홍삼은 수삼을 껍질째 증기나 다른 방법으로 찌서 말린 것을 말한다. 홍삼은 찌는 과정에서 성분이 변해 인삼 중에서 사포닌 성분의 종류와 양이 가장 많다. 홍삼은 겉모양이나 속의 상태에 따라 천삼(天蔘), 지삼(地蔘), 양삼(良蔘)으로 구분한다.

인삼은 여름에 삼계탕에 빠짐없이 들어가고, 가정에서도 홍삼을 만들어 먹는 수준으로 발달했다. 인삼은 발에서 캔 수삼을 깨끗하게 씻어 먹어도 되지만 홍삼과 매일 먹기 좋게 일회용 커피믹스처럼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다.

선물용으로도 인삼이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을 보면 역시 인삼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제품이기도 하다.

김관역 금산 수삼센터장(66)은 “코로나 팬데믹 중에는 사람이 금산에 오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일상회복이 빨라지면서 인삼거래도 기대감이 커지기는 하지만, 인삼 수확기인 가을은 돼야 시장에 활기가 돌 것 같다”고 전망했다.

수삼센터는 연간 거래금액이 7000억~8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인삼 판매업 등의 종사자만 1000명에 이를 정도로 전국 최대규모 판매장이다.

[뉴데일리]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품질관리지원체계구축 지원 관내 식품제조 기업 품질·안전성 향상·기업 역량 강화 도모



충남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금산관내 식품제조 기업의 기업경영 역량과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22년 품질관리지원체계구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품질관리지원체계구축지원사업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교육(팀장·정기과정) △제조시설(HACCP, GMP) 신규인증 및 사후관리 컨설팅 △해외 농·식품규격인증 및 해외 제품등록 △품질관리 등 관내 식품제조 기업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과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지원사업을 통해 △품질관리지원 176개 기업 2,200건의 품질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10개 기업

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법정의무교육 5개 기업 이수 △미국 FDA 제품등록 2개 기업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2개 기업 인증 △식품안전시스템(FSSC22000) 2개 기업 인증 등 총 200여 기업의 품질검사지원 및 인증 취득, 법정교육 이수 지원을 통해 금산군 식품제조 기업의 역량 강화 및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여 높은 성과로 거둔 바 있다.

장영부 품질검사팀장은“전년도에 이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금산군 식품제조 기업의 대내외 역량을 강화하고 금산인삼·홍삼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품질검사팀 장영부]

금산지역 약초산업 발전을 위하여 2022년 인삼약초 전문가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가. 자격

- 금산 군민
- 금산 군민으로 식품제조 관련 업무 종사 희망자
- 금산군 관내 즉석식품 및 식품관련 업무 종사자

나. 모집기간 : 2022. 04. 15. ~ (수시모집)

다. 모집과정

- 식품 기능사 자격증반 (선착순 30명)
- 기능사시험 교재비 자부담 25,000원

- 인삼약초식품제조 창업준비 민간자격증반 (선착순 30명)

- 금산군 예비창업자 및 식품제조 소공인
- 이론 실습 교육비 (자격증+실습재료비) 8만원

라. 교육장소 : 다락원(이론, 실습)

마.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바. 제출방법 : 방문 및 현장 접수(전화 신청자)

사. 접수 및 문의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연구개발센터

041-750-1641



(재)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온라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소공인 온라인 활성화”적극지원-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관내 인삼가공 소공인을 위한 “소공인온라인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흥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매출이 감소되고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진입 및 운영 활성화를 희망하는 소공인들을 돕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하였다.

주요 지원내용으로 ▲온라인 운영 정밀진단 ▲온라인 운영 관련 컨설팅 ▲컨텐츠 제작(제품사진촬영 및 상세페이지 제작) ▲판매채널 플랫폼 입점 ▲체험단 활용지원 ▲온라인광고 및 프로모션 ▲라이브커머스 방송지원 ▲소셜미디어 활성화 지원 등 온라인몰 운영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본 지원사업은 온라인 마케팅 전문 컨설팅 기관과 협약하여 현장에서 풍부한 경력을 쌓은 베테랑 전문가들이 참여해 컨설팅 및 정밀진단을 통하여 온라인 마케팅 맞춤지원을 제공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공인은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gghda.kr)를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후 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소공인의 판로 개척과 함께 이커머스 역량까지 갖추 수 있도록 돕는 게 이번 지원사업의 목표”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들이 온라인 시장 진입으로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지원팀 박지수]

제14대 금산인삼약령시장, 한정만 회장 취임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시장 현대화 및 볼거리 제공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 포부 밝혀...

지난달 22일, 제14대 금산인삼약령시장 회장에 한정만(53)씨가 취임했다.

금산인삼 약령시 장회는 그동안 금산인삼약초시장회를 이끌어온 김대형 회장의 뒤를 이어 한정만 씨를 제14대 금산인삼 약령시장 회장으로 추대해 이날 회장 이. 취임식을 가졌다.

이.취임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해 임원진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임하는 김대형 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신임 한정만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에 취임하는 한정만 회장은 그동안 금산인삼 약령시장에서 사무국장, 부회장 등 요직을 두루 맡아오면서 누구보다도 인삼 약령시장에 대한 애착과 시장 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만 회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금산인삼 약령시장을 이끌어주신 김대형 회장님과 임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면서 “현재 금산인삼 약령시장은 장기적인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비대면과 이동제한 등으로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면서 매출 감소로 이어져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여기에다가 시장 상인분들의 노령화로 온라인 판매, 라이브 커머스 등 같은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시장 현대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약령시장도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회장은 금산인삼 약령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금산인삼 약령시장 주변의 볼거리를 제공과 함께 시장 인근 남산공원을 약초 테마공원 조성을 예로 들고 약초 테마공원에 각종 약초를 식재한 후 방문객들이 약초를 직접 채취하는 자연인 체험, 약초 차, 약초 술 등의 체험장과 약초 테마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금산천 테크 길을 금산 금빛 시장 청년몰과 연계해 금산의 전통문화와 금산인삼약초를 상품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금산의 생태환경, 진약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등산로와 접목해 금산시장의 할 성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산인삼 약령시장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 금산군의 축제 등 행사를 시장 내에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정만 회장

협조하면서 월장, 토요일장터 등의 행사를 활성화시켜 금산인삼 약령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상인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산인삼 약령시장 상인들이 금산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약초 공급, 원산지 표기 철저, 노점상까지도 스스로 단속 및 정리하는 자정운동과 시장 내 자가용 가지고 오지 않기를 실천해 내방객에게 주차공간을 양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금산인삼 약령시장 상인 스스로가 주인으로서 시장 현대화와 활성화에 앞장서 금산을 찾는 분들에게 약초향기 그윽한 쾌적하고 편안한 힐링공간을 내줄 수 있는 금산인삼 약령시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금산 약령시장은 1983년도 금산약초 조합으로 출발해 7명의 조합장을 거쳐 제1대 김종천 통합회장을 시작으로 금산인삼 약령시 장회가 설립됐다. [금산중앙신문방송]

서양이 은폐한 세계상품 인삼

『인삼의 세계사』 (설혜심 지음, 휴머니스트, 2020)

17세기 동서양 교역을 휩쓴 슈퍼스타 인삼

서양은 왜 인삼의 역사를 숨겨왔을까?

한국인의 몸보신에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인삼이다. 한국에서는 탕과 술 같은 음식에서부터 건강기능식품, 고급 약재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인삼을 섭취한다. 오늘날에는 한류 붐을 타고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도 한국인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고려인삼이 유럽에 첫발을 내딛고 유럽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1617년이니, 말하자면 ‘최초의 한류 상품’이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국이 자부심을 가진 인삼의 역사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사실 인삼은 커피, 사탕수수,

면화 등과 함께 대항해시대를 거치며 17세기 거대한 교역 네트워크의 중심을 차지했던 세계상품이다. 그런데 이 상품들과 달리 서양 역사에서 인삼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의문을 품은 서양사학자 설혜심 교수가 오랜 연구 끝에 역사에서 사라진 인삼의 존재를 되살려냈다.

설혜심 교수는 각종 서양 문헌 속 인삼에 관한 기록을 찾아내어 최초로 세계사적 시각으로 인삼의 역사를 복원했다. 하지만 단순히 인삼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서양과 인삼의 불편한 관계를 예리한 시선으로 추적하여 서구 문명이 인삼에 어떤 식으로 왜곡된 이미지를 덧씌웠는지 규명한다. 나아가 인삼을 둘러싼 범지구적 네트워크를 재구성함으로써 서구 중심의 세계체제론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오늘날 한국인삼의 위상을 다시금 살핀다. 동양의 신비한 약초에서 미합중국 최초의 수출품이 되기까지 인삼의 기나긴 여정 속 다채로운 이야기를 통해 서구 학계의 편향을 꼬집는 《인삼의 세계사》는 새로운 역사 속으로 독자들을 이끌 것이다.

이 책의 가장 큰 목적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인삼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다. 이 거대한 틀은 크게 동아시아라는 핵심부와 그 외의 지역이라는 두 영역으로 나뉜다. 그런데 한국·중국·일본을 다루는 내용 대부분은 인삼과 관련된 굵직한 정책과 교역 상황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소개하는 데 그쳤다. 내 전공 분야가 아닌 탓도 있지만 다른 연구자들이 이미 훌륭한 연구를 많이 내놓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게는 서양 문헌 속에서 인삼의 흔적을 찾아내어 역사에 되살려놓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했다. 의학 논고부터 약전, 동인도회사 보고서, 경제학 논고, 식물학서, 지리지, 여행기, 박물지, 신문 기사, 서신, 사진, 소설, 시, 광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가 동원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리고 가급적 그 다양한 자료를 인용해 생생함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 연구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나의 모토는 그런 자료들로 하여금 ‘서양 역사 속 인삼의 존재를 스스로 말하게 하라’였다.

- 〈들어가는 글〉 중에서 (20~21쪽)

동양의 신비한 약초에서
미국 최초의 수출품이 되기까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서양 문헌 속 **인삼**에 관한 기록을 찾아내
서양이 감춘 인삼의 역사를 재구성한 역작!

거대한 역사 뒤편에 숨겨져 있던
인삼의 다채로운 역사를 밝혀
서구 중심의 세계체제론을 뒤흔든다.

집요하고 치밀한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인삼의 세계사적 의미를 밝히고
서구 학계의 편향에 반격을 가하는 탁월한 저작!

- 주경철(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

설혜심 교수의 연구는 인삼의 세계화에 중요한 자료다.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인삼 책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가치가 높다.

- 신희형(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설혜심 교수는 사료의 양적·질적 분석 모두에서 노련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긴 시간에 걸친 추이를 탁월하게 읽어낸다.

- 존 맥켄지(영국 맨체스터대학교 명예교수, 재국주의사의 세계 석학)



인삼의 세계사

서양이 은폐한 '세계상품' 인삼을 찾아서

설혜심 지음

Humanist

《본 기사는 국내 기업 현장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성장을 꾀하는 ‘넷 포지티브’ 사례의 확산과 관련된 4월2일자 동아일보의 전략적 투자와 혁신 활동 사례 시리즈로 “[모두를 위한 성장 ‘넷 포지티브’] 2부 | 기업, 함께하는 성장으로 <1> 스마트공장 지원하는 삼성” 기사입니다》

“솔단지 놓고 홍삼즙 만들던 가게, 삼성전자 도움에 아마존 진출” 기업 함께하는 성장으로 - 스마트공장 지원하는 삼성



“구멍가게 구석에 솔단지 하나 놓고 홍삼즙 만들던 저희가 이젠 미국 아마존에서 홍삼 상품을 팔게 됐어요. 삼성전자 직원들이 자기 일처럼 도와주지 않았다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달 29일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홍삼 제작·판매 업체 홍만집. 공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홍삼을 찌는 달 짝지근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콧속으로 확 들어왔다. 공장 한쪽에선 깨끗하게 씻은 수삼을 찌고 말리는 과정이 한창이었다. 잘 찌진 홍삼에 꿀이 잘 스며들도록 자동으로 수십 개의 구멍을 뚫는 기계도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종업원들은 흰색 위생복과 위생모자, 파란색 위생신발을

신은 채 수삼을 나르거나 자동으로 포장돼 나온 홍삼액 상품을 옮기며 바빠 움직였다. 자동화된 공장을 둘러보던 길미자 대표(60)는 “가내수공업이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국내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아예 바뀌었다”고 말했다.

○ 삼성 공장 견학 이후 바뀐 4대째 인삼 가업

길 대표는 인삼농가 홍만집의 3대 승계자다. 역시 금산에서 3대째 인삼 농사를 짓던 김도원 씨(63)와 1985년 결혼한 뒤에도 인삼은 생계 수단이었다. 인삼 농사를 지어 시장에 가져다 파는 일상이 6년간 이어졌다. 하지만 인삼 가

격이 나날이 떨어지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인삼 자체를 상품화해야겠다는 생각도 갖게 됐다. 사업의 경험이나 상품화 기술이 전무했던 부부는 무작정 건조기와 솔단지부터 샀다. 이전부터 운영하던 작은 슈퍼 구석에 솔단지를 놓고 홍삼즙을 만든 게 사업의 시작이었다. 동네 주민들에게나 팔 심산이었다.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개발사업 지원으로 사업 규모를 키울 수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걱정만 커졌다. 평생 농사만 짓던 부부에게 2t 규모의 기계 유지·보수, 직원 관리, 판로 개척 어느 것 하나 익숙한 게 없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2017년 9월 길 대표는 서울에서 경영대학원을 다니던 첫째 딸 김한나 실장(37)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 우리 힘으론 도저히 사업 못 하겠어. 미안한데 네가 금산에 내려와 주면 안 되겠니?”

김 실장은 2019년 초 그렇게 4대째 가업 승계자가 됐다. ‘젊은 피’가 수혈됐다고 곧바로 사업이 번창하는 건 아니었다. 김 실장으로서도 경영 공부와 실제로 사업을 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란 걸 절감했다. 모녀는 그해 금산 소상 공인 자격으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현장 견학의 기회를 얻었다. 김 실장은 “우리처럼 작은 곳이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현장을 보는 게 무슨 도움이 되나 싶었다. 하지만 직접 공장을 가보고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가장 놀란 점은 공장 곳곳에 놓인 ‘나사 보관함’이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기업이 작은 나사 재고 하나까지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을 본 거다. 김 실장은 홍만집으로 돌아와 공장 곳곳에 ‘사용 후 제자리’ 표어부터 만들어 붙였다.

이후 삼성전자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한다는 공지를 접했다. 이 사업은 삼성전자가 제조기술과 경험을 활용해 어려운 중소 제조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사업이다. 중소 제조기업들이 함께 성장해야 삼성전자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배경이 됐다.

김 실장은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넣었다. 삼성전자는 약 200명의 구성원을 갖춘 스마트공장지원센터를 통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2021년 총 2819개 회사를 지원했는데 홍만집도 그중 하나인 셈이다.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 지원 사례들

매출액 증가율(2019년 대비 2021년)

위제스 (농기계 운전석 제조)	- 용접 자동화 -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구축	40%
레스텍 (마스크 제작 업체)	- 금형 제작 지원 - 긴급 설비 지원	133%
오토스윙 (안면보호구 제조 업체)	- 신제품 개발 지원 - 부품 공급 회사 지원	33%

자료: 삼성전자

○ 공장 대표보다 삼성 직원이 한 시간 먼저 출근

삼성전자의 스마트공장지원팀은 홍만집을 구석구석 둘러본 뒤 창고와 재고 정리부터 시작했다. 당장 쓸 물건과 쓰지 않을 물건, 자주 쓰는 물건과 사용 빈도가 낮은 물건을 구분했다. 공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이었다. 박준하 삼성스마트공장운영팀장은 “생산성을 높이려면 설비를 자동화하고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장이 돌아가는 걸 전 사원이 한눈에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삼성 직원 3명은 금산 인근에 모텔을 잡고 2개월 가까이 매일 출퇴근하며 공장 정비를 도왔다. 길 대표의 출근시간은 오전 8시 30분이지만 삼성 직원들은 오전 7시 30분에 나와 일했다. 우선 수삼에 구멍을 내는 기계를 도입했다. 작업자 여러 명이 포크를 들고 일일이 구멍을 내던 고된 일이었다. 잔고장이 많던 홍삼 진액 포장기도 개조했다. 삼성 본사에서 기계 설비 전문가가 다녀가곤 해 홍만집의 스마트공장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삼성 직원은 20명에 이른다.

홍만집은 올해 5월까지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는다. 지원을 받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종업원은 4명에서 8명으로 늘었다. 매출액도 4억3000만 원에서 8억7000만 원으로 두 배로 뛰었다. 이달부터는 아마존에서도 판매를 시작한다. 길 대표는 모든 게 삼성전자의 덕이라며 고마움을 감추지 않았다.

“직원들이 도와주는 게 고마워 홍삼 한 뿌리 선물하려 해도 한사코 거부해요. 그래서 지난해 말 겨우 손 편지 한 장 써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삼성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더 열심히 해볼게요.”

[동아일보 4월1일자]

코로나19 팬데믹 '건강기능식품 열풍', MZ세대가 이끈다

상당수 “건강기능식품과 면역력, 상관관계가 있을 것” 응답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이제 노년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MZ 세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건기식을 적극적으로 구매해왔기 때문이다. ‘팜뉴스 대학생 기자단’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건기식에 대한 MZ 세대의 관심도를 분석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태어난 ‘밀레니얼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중요한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MZ 세대의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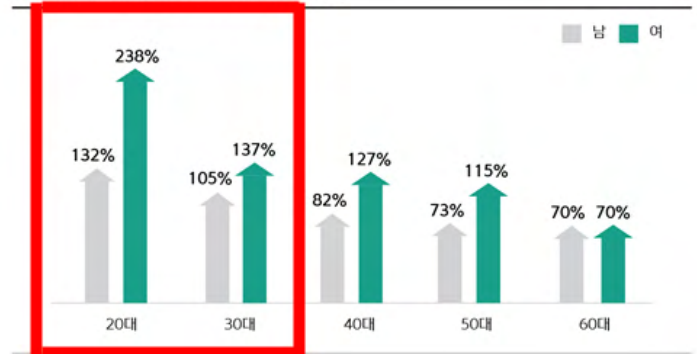
A 씨(24·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생겼다”며 “옛날에는 손도 대지 않았던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지금은 유산균, 비타민 등을 찾는 중이다.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통계도 다르지 않다. ‘신한카드 트렌드 정보’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이용고객 소비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1분기 대비 2021년 1분기 사이에 MZ세대 건기식 구매율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2년 동안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의 건기식 소비는 각각 238%, 137% 증가한 것. 20대 남성과 30대 남성들도 각각 132%, 105%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2020년 2월경 본격적으로 확산된 점을 고려하면 MZ세대의 건기식 구매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로 ‘팜뉴스 대학생 기자단’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20세~26세, 대학생 14명)를 진행한 결과, MZ세대의 건기식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이 면역력이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될 것 같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11명은 “건강기능식품과 면역력

건강기능식품 이용 고객 성별·연령대별 증가율



* '19년 1분기 대비 '21년 1분기 신한카드 이용 기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 ‘면역력 증진과 건강에 관심이 생겨서’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상당수 대학생들은 체력 증진, 피로감 해소, 눈 건강 회복 등으로 기대효과를 언급했다.

조사에 참여한 A 씨(21·여)는 “확진자 수가 수만명이 넘어가면서 주변 사람이 기침을 할 때 혹시라도 걸리면 가족과 친구에게 옮길 수 있어 걱정이 된다”며 “코로나19가 먼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주변 친구가 감염되는 것을 보고 저도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늘어난 이유”라고 전했다.

코로나19가 발생 이전에는 노년층이 건강기능식품을 주로 찾았다면, 이제는 MZ세대가 핵심 소비층으로 급부상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인터뷰 결과다. 이에 따라 상당수 헬스케어 기업들은 MZ세대를 겨냥한 건강기능식품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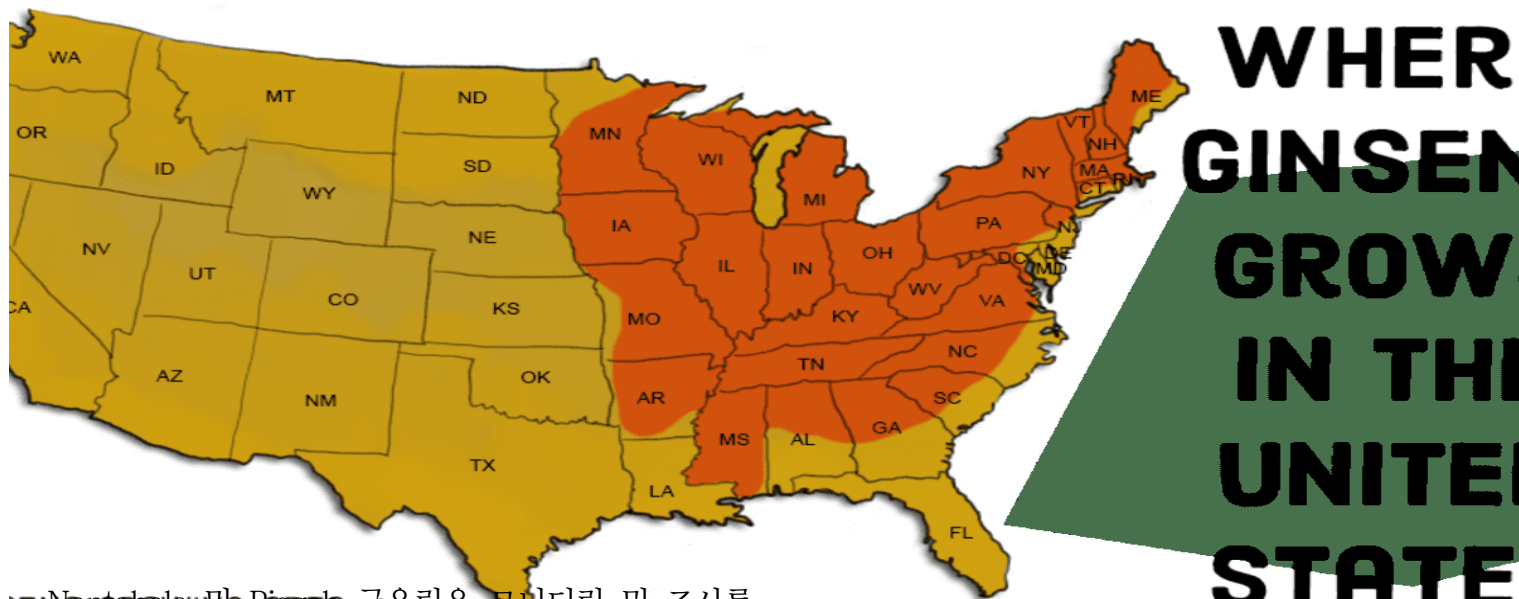
KGC 인삼공사는 올해 ‘탈룰라’라는 밈을 이용한 시트콤 콘텐츠로 ‘정관장’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MZ 세대의 눈길을 끌었다. 경남제약도 최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를 모델로 내세운 결과, 1시간 만에 레모나 초도 물량이 완판됐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 유럽을 대상으로 레모나 수출도 늘어났다.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등의 등장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종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기식에 대한 MZ세대의 관심도와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이 더욱 본격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해당 기사는 ‘약사신문 에디터 과정’을 통해 선발된 우수조가 작성했다. ‘팜뉴스 대학생 기자단(동화약품 2팀 1조)’ - 노희주(덕성여대 3학년), 신선영(건양대 2학년), 천지현(건국대 4학년), 최윤재(가천대 졸업), 유승주(강원대 5학년), 김수지(전남대 졸업), 최종익(단국대 4학년)

저작권자 © 팜뉴스

미국 국유림은 미국삼 수확 허가증을 발급 불가 불법 채취로 멸종위기, 캐나다 야생 삼 수출금지



“Nantahala” 및 Pisgah 국유림은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관찰된 낮은 재배밀도로 인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미국삼 수확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250년 동안 상업적으로 수확한 미국삼은 지속 가능한 수확을 하기에는 재배밀도가 낮은 상태이며, 지역적 생산량을 증가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삼 수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애팔래치아 문화의 일부였으며 우리는 그것이 다음 세대에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삼 수확을 중단하면 국유림의 미국삼이 수확량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계속 수확하면 이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노스캐롤라이나 국유림의 식물학자인 Gary Kauffman이 말했다.

미국삼은 미국 동부 산림이 자생하는 다년생 식물로 수명이 60~80년이고 종자를 통해 번식한다.

10년 이상 된 식물이 가장 많은 종자를 생산하지만 오래된 식물은 수확으로 인해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Kauffman은 미국삼을 국유림에 재도입하기 위해 다른 조직과 협력하여 현지 생산 베드의 종자를 사용하여 미국삼을 과도하게 수확했으며, 모니터링은 개체군 수준, 식물 크기 및 종자 생산량을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가 없이 국유림에서 미국삼 식물 또는 그 일부를 제거하는 사람은 최고 \$5,000의 벌금 또는 연방 교도소에서 6개월 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삼의 채취는 19개주(앨라배마, 아칸소,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켄터키, 메릴랜드, 미네소타, 미주리,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및 위스콘신)에서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지정된 수확기에서 채취가 가능하다.

현재 캐나다에서 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며,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서도 멸종위기 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캐나다에서 야생 삼의 수출은 금지되어 있다.

미국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면허를 획득해야 하며, 일부 주에서는 수확을 위해 주에서 발행한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사유지에서 수확하는 경우에는 수확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 소유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확할 때는 항상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일부 미국 산림청 국유림은 산삼 수확 허가를 발급하고 다른 국유림은 인삼 수확을 금지하고 있다

[홍보마케팅팀 최대영]

고려인삼학회 "홍삼, 코로나19 후유증 피로 개선에 효과 있어"

피로감·무기력감·스트레스 개선효과 확인
만성피로 시달리는 사람에서 효과 더 뚜렷
폐경여성 피로감·항산화능력 개선에도 효과



흔히 홍삼 하면 면역력 강화효과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홍삼이 피로감과 스트레스, 나아가 폐경 여성의 피로감 및 항산화능력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무엇보다 많은 국민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피로감,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코로나19 완치 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는 2022 고려인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웰케어클리닉 김경철 원장(전 차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교수)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가정의학과 정태하 교수 등 다수의 의료진이 참석해 홍삼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홍삼섭취 후 피로감·스트레스 개선

먼저 김경철 원장은 홍삼의 피로감, 무기력감, 스트레스 개선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김경철 원장과 차의과대학 연구팀은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느끼는 20~70세 남녀 대상자 총

76명을 대상으로 홍삼군(50명, ▲교감신경 우세형 ▲부교감신경 우세형으로 25명씩 분류)과 위약군(26명)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이 자가보고식 설문지(피로도검사(Fatigue Severity Scale(FSS):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심해짐)와 자율신경지수 비교를 이용, 피로도 및 무기력감 비교검사를 실시한 결과 주관적인 피로도검사에서 위약군에서는 실험 전후 차이가 없었던 반면 홍삼섭취군에서는 실험 전후 주관적인 피로도가 3.66 ± 0.20 에서 3.33 ± 0.17 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37$).

또 자율신경지수 비교결과 위약군에서는 변화가 없었던 반면 홍삼섭취군에서는 '자율신경지수인 피로도(LF) 지수'가 246.39 ± 47.63 에서 405.03 ± 98.19 로 호전됐으며($p=0.0361$) 스트레스 저항도(PSI) 지수가 56.80 ± 6.49 에서 70.77 ± 9.92 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p=0.082$).

특히 부교감신경 우세형(저혈압, 항상 기운이 없고 추위를 잘 타며 에너지 저하로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유형)에서는 스트레스 저항도(PSI) 지수가 52.08 ± 6.78 에서



웰케어클리닉 김정철 원장이 2022 고려인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홍삼의 피로감·스트레스 개선효과를 확인한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66.83±12.11로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p=0.031).

또 LF지수(피로지수)는 169.24±30.30에서 410.32±98.66으로 유의미하게 호전됐으며 HF지수(무기력 지수)는 반대로 416.37±75.14에서 232.04±60.21로 낮아졌다. 이는 무기력감이 개선된 것으로 해석된다(p=0.0442). 반면 교감신경 우세형에서는 홍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정철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이번 연구는 피로를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홍삼섭취가 피로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주관적인 설문조사와 객관적인 자율신경지표를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특히 에너지 저하로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부교감신경 우세형에서 더욱 크게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홍삼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맞춤 처방에서 더욱 효과적”이라면서 “코로나 후유증의 대표증상으로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삼이 코로나 후유증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폐경 여성, 피로감 개선 및 항산화능력 ↑

홍삼이 폐경 여성의 피로감 개선과 항산화능력 증가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보고됐다.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 가정의학과 정태하 교수·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이용제 교수팀은 폐경 여성 총 63명(초기시작 73명, 63명이 완료)을 대상으로 8주간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대조군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홍삼섭취군에서 생물학적 노화지표인 미토콘드리아 DNA copy수와 항산화능력이 증가되고 피로증상이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구팀은 홍삼섭취군과 위약군을 무작위 배정한 후 홍삼 타블렛 또는 위약 타블레트로 하루 한 번 2g씩 8주간 섭취하게 한 후 ▲피로도에 대한 임상증상척도인 FSS ▲항산화지표인 TAS(Total antioxidative status, 수치가 높을수록 항산화능력이 좋음) ▲생물학적 노화지표인 미토콘드리아 DNA copy수(수치가 높을수록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에너지 대사 능력이 좋음)를 비교했다.

그 결과 피로도(FSS)는 홍삼섭취군에서 홍삼섭취 전 34점에서 8주 후 27점으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게 감소했고(p-value=0.002) 위약군에서는 섭취 전 32점에서 8주 후 31점으로 변화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는 아니었다.(p-value=0.0861). 또 연구팀은 양 군의 미토콘드리아 DNA copy 수의 변화량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음을 확인했다(p-value=0.023).

항산화능력 지표도 개선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홍삼섭취군에서는 항산화지표(TAS)가 섭취 전 1.42±0.16mmol/L에서 8주간 홍삼섭취 후 1.52±0.19mmol로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증가했다(p-value=0.021). 반면 위약군에서는 섭취 전 1.44±0.14mmol/L에서 8주 후 1.40±0.17mmol/L(p-value=0.258)로 감소했으며 양군의 TAS 변화량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했음을 확인했다(p-value 0.011).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노화지표로 미토콘드리아 DNA copy 수에서는 홍삼군에서는 홍삼섭취 전 4.36±2.54에서 홍삼 섭취 후 5.93±3.33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지만(p-value<0.001) 위약군에서는 중재 전 4.70±3.94, 중재 후 4.98±3.1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p-value=0.520). 이에 양 군의 미토콘드리아 DNA copy 수의 변화량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했다(p-value=0.023).

정태하 교수팀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많이 느끼는 대상에 대한 홍삼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연구는 홍삼이 에너지 대사, 항산화능력의 증가 및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서 비단 폐경 여성뿐 아니라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홍삼을 섭취할 경우 에너지 생성과 피로회복을 통해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려인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대리 코로나바이러스 OC43에 대한 홍삼의 항바이러스 효과, 고려인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억제효과 등 홍삼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헬스경향]



금산인삼은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1500년 전통의 명맥을 잇는 유서 깊은 특산물입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고국배송특별전' 판매품목



1
제품명: 나이스 홍삼스틱 30
제조원: 금산인삼협동조합
판매가: 35,000원



2
제품명: 고려홍삼진액 80ml*60
제조원: (주)금산대근홍삼
판매가: 65,000원



3
제품명: 내뽕에 고려홍삼스틱 30
제조원: (주)금산대근홍삼
판매가: 56,000원



4
제품명: 리얼진 홍삼액 80ml*50
제조원: 금산인삼협동조합
판매가: 75,000원



5
제품명: 고려 홍삼정 플러스 250g*4
제조원: 금산인삼협동조합
판매가: 150,000원



6
제품명: 홍삼&석류 젤리스틱 20g*60
제조원: 금산인삼협동조합
판매가: 150,000원



7
제품명: 중년(愛)산수유 홍삼스틱
제조원: (주)금산대근홍삼
판매가: 39,000원



8
제품명: 고려홍삼정 240g
제조원: (주)금산대근홍삼
판매가: 80,000원



9
제품명: 고려홍삼정편상 200g
제조원: (주)금산대근홍삼
판매가: 25,000원



10
제품명: 감성홍삼정 240g
제조원: 홍삼천하
판매가: 99,000원



11
제품명: 고려홍삼농축액 240g
제조원: 금산인삼협동조합
판매가: 109,000원



12
제품명: 금산 홍삼정 스틱 10ml*30
제조원: 금산인삼협동조합
판매가: 80,000원



13
제품명: 큰뿌리 홍삼정과 300g
제조원: (주)금산대근홍삼
판매가: 42,000원



14
제품명: 디저트홍삼스틱 600g
제조원: 삼이아푸드
판매가: 39,800원



15
제품명: 홍기백기 80ml*30
제조원: 우리가홍삼
판매가: 35,000원



16
제품명: 감성홍삼청 700g
제조원: 홍삼천하
판매가: 25,000원



17
제품명: 감성홍삼액 90g*60
제조원: 홍삼천하
판매가: 85,000원



18
제품명: 감성홍삼정편 30g*3*2
제조원: 홍삼천하
판매가: 30,000원

금산군
하늘이 내려준
금산인삼
주문연락처:
* 금번 특별전 상품은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 무료 배송(제주도 및 도서산간지역 제외)

인삼가격정보(자료: 금산군청)

상기 인삼류 가격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삼의 전반적 인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게시 된 자료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금산군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삼류 가격동향(2022. 4. 17)

4근 곡삼	30편		31,500원	50편		30,500원	75편		28,500원
		전시세	37,800원		전시세	36,600원		전시세	34,200원
		등락	-6,000		등락	-6,100		등락	-5,700
		전년동기가격	34,000원		전년동기가격	33,000원		전년동기가격	32,000원

4근 직삼	15편		36,000원	25편		33,500원
		전시세	43,200원		전시세	40,200원
		등락	-7,200원		등락	-6,700원
		전년동기가격	39,000원		전년동기가격	36,000원

5근 직삼	15편		38,000원	25편		35,500원
		전시세	43,200원		전시세	40,200원
		등락	-7,600원		등락	-7,100원
		전년동기가격	40,000원		전년동기가격	37,000원

6근 직삼	15편		42,000원	25편		37,000원
		전시세	50,400원		전시세	44,400원
		등락	-8,400원		등락	-7,400원
		전년동기가격	45,000원		전년동기가격	41,000원

미삼	상품		90,000원
		전시세	90,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90,000원

생건삼	상품		90,000원
		전시세	90,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90,000원



생삼(수삼)	10뿌리		32,000원	20뿌리		24,000원	30뿌리		23,000원
		전시세	32,000원		전시세	24,000원		전시세	23,0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31,000원		전년동기가격	24,000원		전년동기가격	25,000원
	40뿌리		23,000원	50뿌리		23,000원	70뿌리		24,000원
		전시세	23,000원		전시세	23,000원		전시세	24,0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25,000원		전년동기가격	25,000원		전년동기가격	27,000원

금산군 월영산 출렁다리 개통 “달그림자 품은 물빛여행”



월영산 출렁다리 개통



충남 금산군 월영산과 부영산을 잇는 출렁다리가 28일 개통됐다.

출렁다리는 무주탑 방식으로 평균 높이 45m, 길이 275m, 폭 1.5m 규모로 조성됐다.

다리에 오르면 금강 상류 수변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풍동실험을 진행, 대형 태풍급인 초속 61.3m까지 다리가 안전한 것을 확인했다. 70t 하중을 견디는 앵커를 양쪽에 22개씩 총 44개 시공

해 1천500명까지 동시에 통행할 수 있다.

군은 출렁다리 주변에 데크길, 전망대, 주차장을 조성했다. 입장료는 없고 하절기(3~10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동절기(11~2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매주 수요일은 휴무다.

군 관계자는 "금산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월영산 출렁다리에 가족, 친구와 함께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금산군청]

제 4 회

금산 인삼노 축제

2022.9.30^(금) ~ 10.10^(월)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금산군



금산축제관광재단



금산이 Geumsan
뿌리입니다 Ginseng

발행일 2022. 04

발행인 김영수

발행처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전 화 041-750-1672

팩 스 041-750-1679

주 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5